



◇순천 송광사가 시민 휴식처로 조성할 신명리 연꽃단지 예정지.

## 송광사, 1600여평 연꽃단지 조성

호젓한 산책로

정자 갖춰 시민 휴식처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

소득 증대 효과 기대

전남 순천 송보종찰 송광사(주지 현봉) 일대에 대규모 연꽃밭이 조성된다. 송광사는 전통 문화유적 정비의 일환으로 순천 송광면 신명리 사찰 입구 1,600여평의 부지에 모두 2억여원을 들여 계단식 연꽃밭을 조성하기로 했다. 연꽃밭 주변에는 송광사로 연결되는 친환경 산책로를 개설하는 한편, 다리, 정자 등 부대시설을 건립해 시민들의 휴식처로도 제공한다. 또 연차적으로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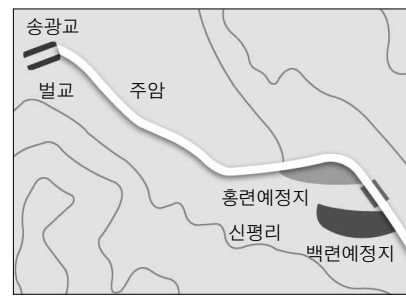
을 늘려 신명리 일대를 대규모 연꽃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연꽃단지는 어린이·청소년의 환경관련 현장학습장으로 제정되며, 인근지역의 벚꽃·단풍철을 잇는 여름철 관광명소로 육성된다. 이에 따라 송광사는 계단식 논에 농약, 질소질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연꽃을 재배하는 한편, 연근·연차 등은 특화상품으로 판매, 소득을 지역민 복지와 연꽃밭 확장자금으로 활용할 예

정이다. 연꽃 확산을 위해 연뿌리를 전국 각 지역에도 보급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연꽃밭이 조성될 경우 연꽃의 높은 정화능력으로 주안호 유입수의 수질 개선은 물론 인근지역의 관광산업 발전, 지역민 소득 증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광사 주지 현봉스님은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향기로운 꽃을 피워 오락약세에도 물들지 않는 청정함을 상징해 전통적으로 사찰에서 많이 키워왔다"며 "광주, 전남지역의 상수원인 주안호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고, 다른 지역으로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광사는 연꽃밭 조성을 위한 첫 사업으로 4월 5일 식목일을 이용해 지역민과 불자들이 참여하는 연꽃심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불자들의 연꽃심기 동참도 받고 있다. (061)755-5301.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송광사연꽃단지 위치도.

## 우리결 우리 신도들

### “허드렛 일도 기도정진”

서울 도림사 이철은 보살

“남을 위해 봉사하고 보시행을 펼쳐라라는 부처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삽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3동에 위치한 전통사찰 도림사에서 20여년간 한결같이 굶은 일을 마다 않고 보시행을 몸소 실천하는 이철은 보살(61, 법명 연화)은 기자의 질문에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며 한사코 손사래를 쳤다.

이 보살은 사찰의 신도회장도 그렇다고 신도회의 간부도 아니다. 하지만 20여년간 절에 법회나 행사가 있는 날이면 새벽같이 사

보신도들은 이 보살을 공양주 보살로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회나 행사 있는 날이면 아침 일찍 사찰에 올라가 정성스럽게 준비 한다는 신도들을 맞이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도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분위기에서 기도정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기 때문이지요. 격정하고 근심거리를 가득 달고온 신도들이 기도 회향을 잘 하고 비법법 한 그릇이라도 맛있게 먹고 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이 보살이 느끼는 기쁨은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조그만 힘이 됐다는 보람 때문이다. 그 보시행의 참맛을 알아서일까. 이 보살의 봉사는 사찰 내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도림사 인근의 을로초등학교 결식아동돕기과 불우가정에 보내는 ‘사랑의 라면보내기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행사 때 남은 음식은 따로 봉지에 싸두었다가 주지스님과 함께 동네 노인정이나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준다. 이외에도 이 보살은 한달에 한 번 있는 군법당 위문법회에 도 빠지지 않는다.

### 법회준비, 공간갈 일 가장 먼저 준비

### ‘사랑의 라면 보내기’ 등 봉사에도 앞장



◇사찰 행사가 있는 날이면 아침마다 가장 먼저 법당에 나와 초와 향을 밝히는 이철은 보살.

찰에 나와 봉사한다. 이 보살은 지병인 허리 디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찬 공기 쐬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법회가 있는 날이면 가장 먼저 법당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초를 밝힌 뒤 청소부터 맡김히 한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공간갈에 들어가 그날 행사에 필요한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친다. 그래서 사찰에 나온 지 얼마 안되는 초

“사찰에 나오면 남이 꺼리는 일을 하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을 저의 수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드렛일을 하는 것도 기도정진의 연장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보살이 도림사에서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한껏 사랑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다. 김주일기자



추천의 말  
무연스님 도림사 주지

### 말보다 실천이 앞서서 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불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보살은 우리절의 모범 신도입니다.



◇각연사 통일대사 부도

## 각연사 통일대사 부도 등 보물지정

문화재청은 10일 충북 괴산군 각연사 통일대사부도와 충북 영동군 반야사 3층 석탑, 전남 함평군 고막천 석교 등 3건을 각각 보물 1370, 1371, 1372호로 지정했다.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 부도는 1965년 무너진 채 발견된 것을 1982년 복원한 것으로, 통일신라시대 팔각원당형 석조부도 양식을 충실히 계승한 전형적인 고려 전기 부도다. 보물 1295호인 통일대사탑비(958년 조성)와 같은 시기인 고려 광종

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동 반야사 3층석탑 역시 고려 전기 석탑으로 백제와 신라 석탑의 양식을 함께 수용하면서도 고려 나름의 특징을 살린 독특한 형식의 석탑이다.

1390~1495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함평 고막천 석교는 널다리 형식으로 만들어진 돌다리로 원래 위치에 원형을 간직하고 남아 있는 석교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권형진 기자



◇반야사 3층석탑

### LA관음사 창립30주년 기념법회

### “대학설립, 방승포교에 진력”

미국 LA관음사(주지 도안)는 9일 4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주지 도안스님은 “LA에 한국사찰을 개산한지 30년을 맞았다”며 “앞으로 도제양성을 위한 정규대학 설립, 자원봉사자 양성, 방승포교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음사는 문화원 대강당에서 도문스님(대각회 회장)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 고려사, 달마사, 대각사, 반야사, 법보선원, 법왕사, 보광사, 보문사, 원명사 스님과 신도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기자

### 정읍지역 문화예술계

### 내장사 불교박물관 설립 추진

정읍 내장사에 불교박물관을 만들자는 지역여론이 거세다. 정읍지역 문화예술계는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중간에 위치한 우체국건물의 70평 내부를 박물관으로 개보수해 내장사가 소유하고 있는 불교관련 문화재를 전시하는 방안을 시에 요구했다. 또 각종 향토유물과 사료도 함께 전시, 지역홍보에 나서자고 밝혔다. 현재 한옥형태인 우체국 건물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상태에서 방치돼 있다.

정읍 내장사 한 관계자는 “지역문화계의 요청에 대해 최근 시에서 사찰에 불교박물관 설립 의향을 타진했다”며 “하지만 우체국 공간이 불교박물관으로 개조하기에는 너무 비좁아 폭넓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 한미불교신문 창간

김용수씨가 주도하는 (가)한미불교재단은 4월 25일 격주간 ‘한미불교신문’을 창간할 예정이다. 한미불교신문은 미국 전지역 사찰과 한인밀집지역에 배포된다. 또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한 영문판 지도 발간할 계획이다. 김원우기자

##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現 '삼경그룹' 고문
- (주)하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 ◆ 「명상 최면 지도서」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 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서>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교육내용」

-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 -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 전생퇴행 명상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 원격제령 명상최면 - 제 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동방 명상 전생연구학회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 실시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일반적인 최면수업외 **대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식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수시접수

## 2002년 12월11일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조카딸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을 단 한번의 명상최면으로 해결하다.

◆수업에 참가하신 많은 스님들이 영가천도 및 제령부분에서 영가와 직접 대화가 이루어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십 수년씩 기공 공부를 하신 분들이 수업을 끝내고 난 후 지금까지 채울 수 없었던 부분을 정리하고 완성 시킬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뛰어난 영매자들이 수업을 참관하고 난 뒤 자신의 보호령과(몸주신) 기타의 영적존재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을 전해오고 있습니다.